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592

2018년 2월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위 연구보고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의 화용적 요소 교육 방안 연구

- 대화 함축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윤 태 병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의 화용적 요소 교육 방안 연구

- 대화 함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lement of Pragmatic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methods for Multi-cultural family
- Focusing on the Implicature -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윤 태 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의 화용적 요소 교육 방안 연구

- 대화 함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장 경 현

이 연구보고서를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위 청구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윤 태 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윤태병의 교육학 석사학위 연구보고서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석 주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경 현 인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2
2. 선행 연구 ····· 4

Ⅱ. 한국어 화용적 요소 교육방안 ····· 6
1. 화용적 요소의 개념 ····· 6
1.1. 화행의 개념 ····· 6
1.2. 직접화행과 간접화행 ····· 7
2. 한국어에서 간접화행의 화행적인 특징 ····· 10
2.1. 간접화행의 특성 ····· 10
2.2. 간접화행의 분류 ····· 12
2.2.1. 관습적 간접화행 ····· 12
2.2.2. 비관습적 간접화행 ····· 12
3. 한국어에서 대화함축의 화행적 특징 ····· 14
3.1. 함축의 의미와 대화의 원리 ····· 14
3.2. 대화함축의 특성 ····· 20
3.3. 대화함축의 분류 ····· 22
3.3.1. 일반대화함축 ····· 22
3.3.2. 특정대화함축 ····· 23
4. 화용적 요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예시 ····· 24

Ⅲ. 결론 ····· 3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 표 1 > 수업지도안·····2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농촌지역 뿐만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6년도 다문화 가구 가구원 수는 963,174명 그리고 다문화 가구 내국인 출생자 수는 595,050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9월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조만간 2020년이면 다문화가정 인구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편중된 성 비례수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수요는 급증했다는 점, 과거와는 달리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점, 그리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아시아나 유라시아 등 주변국에 있는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국적이나 빈곤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이주가 잦아진 점 등의 요인들이 있다. 이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필수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도 우리는 이제 종종 길을 가다가도 주변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볼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은 초등학생은 74,024명, 중학생 15,105명, 고등학생, 10,057명으로 초등학생 현황이 75%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에서 태어나거나 교육받는 자녀들은 한국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어머니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산다. 이주 1세대인 이주여성노동자인 어머니와 자녀 간에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녀들은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어머니와는 다르게 갖기도 한다.

조만간 사회 진출을 하게 될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세대가 한국어 모국어에 숙달되지 못한 채 사회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언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국내 정착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이며, 언어로 인한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직장과 가정에서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감을 박탈시킨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 학습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툰 한국말 때문에 소외를 당하거나 정규 수업을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여러 곳에서 한국어교육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지만 아직은 많은 한계를 보인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어려워하고 있다. 한국어 사용이 서툴러서 대화 범위가 넓지 않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정부와 교과부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 하지 않은 재정예산과 전문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아직은 다문화가정의 학생,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한국어 교육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그 한계들 중에서도 다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화가정 가족들에게 좀 더 복잡한 언어적 한계는 단순히 어휘나 문법적인 장치라기보다는 실제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화행적인 측면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면에서 특히 한국어 화행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려는 시도로 작성하게 되었다. 강현자(2009)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직접 화행으로 의사를 표현한다고 했다. 직접 표현은 전달력은 분명하지만 경우에 따라 담화 상황을 경직시킬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발화 상황에서 좀 더 수월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가요.” 보다 “오늘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갈 것 같아요.”처럼 종결어미나 연결어미 사용이 조금이 달라져도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수업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약국, 병원, 우체국, 은행 등의 장소에서도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말 건네기, 의례적인 인사, 호칭 등의 상황에서도 간접 화행을 통해 상황과 상대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한국어 화행은 습득하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습득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언어에 대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의 사고방식, 감성적 요소, 나아가서는 문화적 요소까지도 이해하고 학습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이고 능숙한 한국어 화법 구사를 위한 것이다. 그 중 한국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화함축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한국어의 화행적 요소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유창한 화법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결론을 맺고 연구에 대한 반성과 남겨진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발화에서 생기는 대화함축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어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소개되어야 될 지를 분석하고, 교육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잘 하는 짓이다.’ 이 발화를 들었을 때, 외국인 학습자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도 담화의 내용이나 앞뒤 맥락을 무시한 채 단순히 이 말 한 마디만으로는 무슨 뜻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는 비록 담화의 전체 맥락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표현이 어떤 대립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담화의 일부이며 격한 감정이 언어의 화행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입되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으로 발화된 것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 모어 화자라면 이런 표현이 화행으로 발화되는 경우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런 표현이 발화된 담화 상황이 심각하게 대립되는 다툼이 있는 담화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잘 하는 짓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내는 언표적[1] 이고 직접화행적인 의미는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화행이 발화되는 사회·문화적인 언어 습관과 화행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간접적인 화행 속에 숨겨져 있는 언표내적[2]인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로 배우는 제2언어가 간접화행으로 발화되는 경우 전체 담화의 내용과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 상대자 간의 소통에는 오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언어를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기술의 언어'가 아닌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게 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소통의 언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언어를 사용할 때 단순히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특정의 문맥 또는 발화 상황에서 해석되는 발화수반행위의 의도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오가는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개인적인 측면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동력이 되는 문화적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언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관용어나 속담 등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뿐만 아니라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도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 측면에서의 언어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발화 상황을 이해하고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

---

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언표를 '언외(言外). 말로 나타낸바'로 정의하였다. 즉 언표적 행위(言表的行爲, locutionary act)는 발화 행위 (發話行爲)로서 '의미를 가진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이다.

2) 국립국어원에서는 언표내적 행위(言表內的行爲, illocutionary act)를 발화 수반 행위(發話隨伴行爲)로서 '언어 표현을 발화할 때, 화자가 수행하기로 의도된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발화 시에 수행되는 행위로, '사과, 비난, 고소, 축하, 허락, 조롱, 명명, 약속, 주문, 거절, 맹세, 감사' 따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언표내적 능력(言表內的能力)는 발화 효과 행위로서 '화용적 능력에 포함되는 언어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화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청자가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발화 자체의 언어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행위를 종합하여 발화가 담고 있는 의미, 감정, 질문, 경고 따위를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표내적 행위'라는 용어 대신 '발화수반행위'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기로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드러나는 개별 화행이 가지는 발화수반행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장 유형이 가진 본질적 화행을 나타내는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3] 과 달리 문장 유형이 가진 본질적 화행과 다른 화행을 나타내는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4]은 어떤 특정 발화 상황에서 형식에 맞지 않게 다른 화행으로 표현하는 문장이나 심지어는 비문까지도 정상적인 의미의 문장으로 해석되는 의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2. 선행 연구

지금까지 화행적 요소를 주제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여러 성과를 보였다. 그 중 몇 가지만 제시해 본다.

먼저 이현진(2000)에서는 대화함축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독일어에서의 함축을 전제와 추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실제 발화 일부와 독일어 자료인 <Das Beste>, 어우야담, 세계 풍류 야담전집 에서 발췌한 내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협동의 원리에 의해 분석하였다. 특히 반어, 중의성, 모호성 등의 요인에 따른 관련성 이론의 추론 작용으로 유머가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현정(2001)에서는 주로 의사소통 언어 교수법을 토대로 주로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어떤 교수 학습 내용이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의 말하기 교수-학습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 교재의 편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권성미, 이혜용(2008)에서는 한국어 간접화행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함으로써 간접화행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판정 기준을 기준 으로 한국인의 발화에서 간접화행이 실현되는 양상과 한국어 교재 대화문 텍스트에서 간접화행이 실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화행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간접화행을 기준에 따라 나누고 빈도를 조사하여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은

---

3)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직접화행(直接話行, direct speech act)을 '문장 유형과 발화 수반 행위 간에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응이 존재하는 화행'이라고 정의하였고 '모든 발화된 언어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오스틴, 설(Searle, J.)의 화행 이론에서 제기된 것으로, 문장에 직접적으로 수행을 요구하는 동사나 표현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습니까?'나 '질문한다.'와 같이 관습적으로 수행성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드러난 경우의 화행 방식이다.'라고 하였다.

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간접화행(間接話行, indirect speech act)을 '문장 유형과 발화 수반 행위 간에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 화행.'이라고 정의하였고, '모든 발화된 언어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오스틴과 설(Searle, J.)의 화행 이론에서 제기된 것으로, 직접적인 수행 동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화자와 청자 간에 발화수반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직접 화행보다 전달력이 강하며, 청자에 대해 공손성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라고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화행론의 논의가 이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한국어 교육의 적용으로 이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김옥춘(2017)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간접화행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한국어 수업 교재의 모범 대화문에서 한국어 간접화행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각종 매체나 용례들을 통해 실제 간접화행의 유형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한국어 화용적 요소 교육방안

1. 화행적 요소의 개념

1.1 화행의 개념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적 요소인 음운, 어휘, 문법 등을 포함하여 문장을 생성한다. 또한 비언어적인 요소가 아닌 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생각, 사상, 감정 등을 상대방과 소통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발화를 통하여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유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화행'은 사람들이 발화를 함으로써 특정한 행위가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화행이론은 J. L. Austin(1962)이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Austin에 의하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며, 화자의 내재된 의도가 구체적인 발화로 실현되고 그 발화는 어떠한 행위를 수반한다고 한다.

즉 화행이론은 '언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어적 의미와 발화의미 이 둘 모두에 초점을 맞춘다. 발화를 할 때 이행되는 행위' 즉 화행을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5)]

Austin의 화행의 구성:

A. 발화행위 :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련의 것들을 구별하고, 이 것들을 함께 묶어 수행하는 발화행위이다.

B. 발화수반행위 : 통보, 명령, 경고, 보증 등과 같은 발화행위, 즉 어떤 관습적인 힘을 갖는 발화를 수행하는 행위이다.

C. 발화효과행위 :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즉 화자가 어떤 문장을 발화했을 때 청자는 그에 수반된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 해석 가능성에 따라 발화에 따른 다음 행위의 결과는 달라진다. 더욱이 은유나 비유같은 추상적인 표현에서 발화효과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발화행위는 화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수행할 때 청자는 화자가 발화한 문장만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고 진위를

5) 연구자에 따라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또는 '표현적 행위, 비표현적 행위, 표현달성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판단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행위 가운데 특히 발화수반 행위가 의사소통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은 발화행위와 발화수반행위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과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을 구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국어교육에서 화행연구에서는 모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문장 통사구조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간접화행의 의미를 굳이 대응하며 정리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문장의 형식은 발화자의 의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그간 화행 연구는 많았지만 모국어 화자의 기준에서 연구되었고 근간에 나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논문에서도 통사적 구조에서 시작한 연구가 아니라 간접화행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직장이나 한국으로의 이주를 위한 성인들이므로 이들에게는 단기간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1.2. 직접화행과 간접화행

발화수반행위는 화자가 의사소통에서 발화를 통해서 수행하려는 행위이다. 즉 각 문형의 문장이 각각 대응하는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직접화행이라고 하고, 각 문형의 문장이 각각 대응하는 행위가 아닌 다른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간접화행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직접화행은 맥락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발화수반행위가 문법적 표지로 나타난 행위와 그대로 일치되는 화행을 말한다. 반면에 간접화행은 맥락적 상황에 따라 발화수반행위가 문법적 표지로 나타낸 행위와 다르게 해석되는 화행을 말한다. 즉 직접화행은 상황 맥락적 요소가 작용하지 않은 반면에 간접화행은 맥락적 상황에 따라 달리 분석될 수 있다. 우선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1) ㄱ. 티엔은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았다더라.
ㄴ. 밖이 너무 추운데 치마말고 바지가 괜찮지 않니?

(1ㄱ)은 단순히 청자에게 티엔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티엔처럼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아라.'는 충고를 나타내는 발화일 수 있다. (1ㄴ)은 표면적으로 '치마말고 바지가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밖이 너무 추우니까 바지를 입으라는 화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또 직접화행은 문장 종결어미의 문법표지에 의한 해석만 가능한데,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집에 가자.

(2)는 맥락과 관계없이 직접화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유문인 이 발화는 청유뿐만 아니라 설득, 권유 등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청유의 전달의미에 속한다고 본다. 이처럼 문법적 종결 표지가 청유문인 문장이 청유 외에 설득, 권유의 의미도 전달하거나, 또는 진술문인 문장이 약속, 경고 등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간접화행으로 보지 않고 직접화행으로 본다.

(3) ㄱ. (발표를 잘한 친구에게) 너 발표 정말 잘한 거 아니?
ㄴ.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에게) 너 이제 공부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3ㄱ)은 실제로 누군가를 칭찬하는 발화로, 화자가 상대방의 발표를 듣고 칭찬하는 경우이다. (3ㄴ)의 발화는 화자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청자에게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발화효과행위는 발화의 결과로 듣는 이를 기쁘고, 놀라고, 슬프게 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곧 화자의 발화가 청자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발화 행위이다

Grice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 가설은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율적인 언어 사용의 지침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중 화용론의 용어로서 간접화행이 가지는 전제[6]나 함의[7], 함축[8] 등의 여러 가지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청자로서 화자의 간접화행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는 그 속에 포함된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법적 의미만으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

6) 전제 :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단언될 필요가 없는 의미, 파기될 수 없고 비진리 조건에 기여하는 의미론적 전제, 세상에 관한 청-화자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 소될 수 있는 화용론적 전제가 있다.

7) 국립국어원의 ≪표준어국어대사전≫에서는, '함의'란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이라고 정의하고 '명제 상호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하나로서 명제 P가 참이면 반드시 명제 Q도 참이 되는 경우에 P가 Q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표현과 언제나 결합하는 의미로서 그 표현이 사용되면 언제나 함축되는 의미, 예컨대 어떤 축구팀이 상대팀을 물리쳤다고 하면 그 팀이 상대팀보다 적어도 한 골 이상 더 득점했다는 것을 함의한다.

8) 국립국어원의 ≪표준어국어대사전≫에서는, '함축'이란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에 간직함. 말이나 글이 많은 뜻을 담고 있음.'이라고 정의하고, 문학의 측면에서는 함축이 '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Grice 이론에 따르면 청자는 대화 함축을 파생시키는 추론 과정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맥락의 관련 여부에 따라 일반화되거나 특정화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학생 A와 B가 교실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 A가 B에게 연필을 빌렸다. 잠시 후 연필이 필요해진 B가 A에게) B : 연필 다 썼니?

(4)에서 '연필 다 썼니?'는 직접화행인 명령문을 질문형식으로 표현한 간접화행으로서, 이 문장의 원래 발화 의도는 담화의 앞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필을 돌려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전체 담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필 다 썼니?'라는 표현만 본다면 이는 단순히 '응, 다 썼어.'나 '아니, 아직 다 쓰지 않았어.'라는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간접화행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직접화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간접화행이 뜻하는 내용은 발화된 문장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언어적 의미와 달리 발화 행위의 전제가 되는 담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하나의 발화가 직접화행으로 이해될 것인지 또는 간접화행으로 간주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담화의 맥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언어 행위는 흔히 의사소통의 주변 현상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한국어에서 간접화행의 화행적인 특징

2.1. 간접화행의 특성[9)]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화행보다 간접화행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한 실제적인 언어의 사용면에서 볼 때 간접화행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화행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간접화행의 특징은 간접성에서 나타난다. 간접성은 청자와 화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간접화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화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적인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 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를 좀 더 부드럽고 원만하게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회피함으로 해서 갈등의 요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화행은 직접화행보다 정중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특히 행동 요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 ㄱ. 창문 좀 열어주세요.
ㄴ. 창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ㄷ. 방이 좀 덥지 않아요?
ㄹ. 환기를 시키면 좋겠네요.

(5ㄱ)은 청자가 창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발화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5ㄴ, 5ㄷ, 5ㄹ)은 창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 하는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5ㄴ)은 질문화행으로 청자의 의도를 물어 본 것이며, (5ㄷ, 5ㄹ)은 창문을 여는 주변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 행동의 여부는 청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화자의 의도를 간접화행을 통해 정중하게 표현함으로써 혹시라도 청자가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이나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간접화행의 정중함은 그 표현에 따라서 정중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화자와 청자의 경우가 매우 친밀한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성 때문에 오히려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벌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6) ㄱ. 연필 하나만 빌려 줘.
ㄴ. 연필 하나 더 있니?

---

9) 김옥춘(2017)에서 예시의 경우를 인용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ㄷ. 혹시 연필 더 있으면 하나만 빌려 줄래?

ㄹ. 혹시 연필 하나 더 있으면 잠깐만 쓰고 돌려주면 안 될까?

(7) A : 혹시 연필 하나 더 있으면 잠깐만 쓰고 돌려주면 안 될까?

B : 친구끼리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그냥 가져다 쓰면 되지.

(6)는 친구에게 연필을 하나 빌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다. 여기서 직접화행인 (6ㄱ)은 화자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드러낸 것과 달리 (6ㄴ, 6ㄷ, 6ㄹ)은 연필을 빌려 쓰기 위해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간접화행으로서 행동 요구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에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좀 더 공손한 표현들이다. (6ㄴ)보다는 (6ㄷ)이, (6ㄷ)보다는 (6ㄹ)이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경우에 지나치게 공손한 간접화행을 사용해서 오히려 청자에게 평상시와 다른 불편하고 낯선 느낌을 준다면 서로간의 친밀한 거리를 벌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간접화행은 몇몇의 경우에 발화수반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직접 화행보다 간접화행의 발화수반력이 강화되는 경우는 진술문을 질문문으로 나타내거나 질문문을 명령문으로 나타낼 때 등이다.

(8) ㄱ. 네가 그걸 하겠다고?

ㄴ.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요?

(8ㄱ)은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진술문을 질문문으로 나타낸 것이고 (8ㄴ)은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진술문을 질문문으로 나타낸 표현으로서 둘 다 직접화행인 진술 형식보다 발화수반력을 강화한 간접화행의 예이다. (8ㄱ)과 같은 경우는 강한 부정을 표현하기 위해 진술문을 질문형식으로 발화하여 그 발화수반력을 강화한 경우인데 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불쾌한 표현으로서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간접화행은 청자에게 화행의 추론을 요구한다. 발화된 문장의 내용을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직접화행과는 달리 문장 유형과 발화수반행위 간에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 간접화행은 청자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가 표현한 말의 뜻을 한 번 더 계산하여 앞뒤 맥락에 맞게 추론을 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는 표현들인 것이다.

(9) ㄱ. 방이 엄청 지저분하네.

ㄴ. 저런 가방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9ㄱ)은 '청소해라.'라는 명령문을 진술문으로 표현한 것이고, (5ㄴ) 은 '가방을 사달라.'라는 명령문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청자의 추론을 요구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간접화행은 때로는 경제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자가 화자의 발화 의도를 추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어떤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간접화행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10) (누군가가 갑자기 길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119 구조대에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10)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촉박한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발화되는 화자의 화행이 길어지는 간접화행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2.2. 간접화행의 분류[10)]

2.2.1 관습적 간접화행

류팡(2009)에서는 간접화행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함으로써 간접화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관습적 간접화행은 명제내용의 언어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관습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간접화행을 말한다. 즉 일정한 고정된 관습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들의 직접화행의 의미가 인식되지 못하고 간접화행의 의미만 인식된다. 다음과 같은 관습적 간접화행의 예문을 보자.

(11) ㄱ. 문을 닫아 줄 수 있어?
ㄴ. 문을 닫아 줄래?
ㄷ. 문을 닫아 주겠어?
ㄹ. 문을 닫으면 좋겠다.

(11)의 예문은 의문문이나 진술문의 형식으로 명령이나 요청의 화행을 나타내는 간접화행이다. 이러한 발화를 듣고, 특정한 상황 외에 청자가 이들을 '문을 닫아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다. 이들이 직접화행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간접화행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ㄹ 수 있/없다', '…ㄹ래?', '…주겠어?', '…면 좋겠다' 등 관습화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들의 문자적 의미 대신 자주 쓰이는 간접화행의 의미만 인식된다. '…ㄹ 수 있/없다', '…ㄹ래?', '…주겠어?', '…면 좋겠다' 등과 같은 표지는 이미 관습화된 표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2.2.2. 비관습적 간접화행

10) 류팡(2009)의 분류 방법과 예시 인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앞에서 관습적 간접화행에 대한 논의에 따라 비관습적 간접화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곧 비관습적 간접화행은 관습화된 어떤 관습적 표현 형식을 가지지 않는 간접화행을 말한다. 비관습적 간접화행을 해석하는 것이 관습적 간접화행을 해석하는 것보다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 청자가 비관습적 간접화행을 듣고, 직접화행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간접화행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때로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간접화행으로 이해하려면 관습적 간접화행과 달리 비관습적 간접화행은 관습화되지 않아서 청자가 보다 복잡한 추리 과정을 거쳐야 인식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보자.

(12) 방이 좀 춥네.

화자가 (12)의 발화를 하면 방이 춥다는 것을 느껴서 진술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상대방 에게 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문장의 언어 구조 안에서 문을 닫아달라는 말은커녕 '문'과 관련되는 말도 없다. 이러한 간접화행은 비관습적 간접화행에 속한다. 그런데 비관습적 간접화행은 모두 명제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13) ㄱ. 문 좀 닫고 살자.
ㄴ. 문 안 닫고 뭐해?
ㄷ. 왜 문을 안 닫아?
ㄹ. 문 닫는 것 잊었어?

(13)의 문장들은 모두 '문 좀 닫아줘'라는 명령화행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직접화행의 언어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발화지만, (13)에서의 발화처럼 규칙성이 없고 수없이 들을 수 있어서 관습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도 비관습적 간접화행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한국어에서 대화함축의 화행적 특징

3.1. 함축의 의미와 대화의 원리

간접화행을 연구할 때 같이 논의된 개념 중의 하나가 대화적 함축이다. 함축은 일반적으로 관습적 함축과 대화적 함축으로 구분되는데, 관습적 함축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 자체가 갖는 함축의 의미가 자동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대화적 함축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화 상황에서 어떤 상황, 가정, 장소, 배경 등 맥락에 의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화행의 해석도 맥락적 요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화적 함축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태자(1989)는 간접화행이 축자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음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고, 좁은 의미로서의 간접화행은 그 직접적인 화행의 명제내용인 언어구조를 바탕으로 발화되는데 반해, 대화적 함축은 그 발화의 언어구조와 관계없이 즉 말해진 바가 아닌 그 너머의 의미를 뜻한다고 한다. 본고에서 간접화행을 맥락적 상황에 의해 해석하는 것으로 보는 넓은 의미의 간접화행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간접화행은 본질적으로 대화적 함축에 의한 간접적 사용 중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김현주(2016)에서는 함축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함축(Implicature)'이라는 말은 '함축하다(imply)'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다. 'imply'라는 말은 라틴어인 'plicare'에서 나온 말로 '접다'라는 뜻이다. 즉 함축되었다는 것은 접혀져 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접힌 것을 펼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화상에서 접혀져 있는 것을 펼친다는 것은 발화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대화의 원리는 문법 규칙과는 다르다. 대화는 논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협조의 문제이며, 화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가 '말해야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의 원리는 언어학적 사고라는 추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작용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문화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에 따른 변용의 범위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국어 습득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에서도 적용하도록 하면 된다.

Grice(1975)는 화자가 대화 상황에서 어떤 발화를 했을 때 청자는 그 발화 자체의 표면적인 의미와 그 발화 속에 담겨 있는 함축의미를 구별할 수 있고, 이때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함축의미라고 하였다. Grice는 함축 중에서도 대화함축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함축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 의사소통을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대화를 지배하는 원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라고 한다. Grice는 대화 시에 화자가 협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동적이 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화자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청자가 기대하고 있는 양만큼의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는 대화 참여자들이 협동적이 되려고 한다는 그의 관찰을 보다 효율적인 이른바 하나의 원리로 형식화하였는데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생각된 것은 대체로 표현되지 않거나 일정한 관계로 사용됨으로 다소간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모든 대화에는 협력의 원리가 기초를 이룬다.

이는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할 때는 참여자 상호 간의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한다는 원리이다. 그리고 이 협력의 원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하위 격률들을 포함하는 대화의 격률(Maxim of Conversation)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1.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만큼 대화에 기여하라.

2. 대화의 격률(Maxims of Conversation)

(가)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

양의 격률은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성만을 제공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성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보성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새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지식을 전해 주는 것을 뜻한다.

1) 현재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2)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나)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

질의 격률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것이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1)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2)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화자는 말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주 질의 격률을 위반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며, 화자는 종종 질의 격률과 다른 격률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서 다른 이에게 진실을 예리하게 말하면서 협력적일 것인가? 혹은 경건한 거짓말이 적당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
관련성이 있는 말을 하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라)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
한마디로 간단명료하게, 말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다.

1) 명료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피하라.
2) 중의성을 피하라.
3) 간결하게 말하라.
4)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말하라.

대화 참여자들은 상호 협력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격률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인데, 함축의미는 이 격률을 지켜야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화의 격률을 지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대화 참여자들은 해당 발화가 대화 격률보다 상위의 원리인 협력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청자는 협력의 원리를 지킨다는 가정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이때 추론되는 의미가 함축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대화함축은 대화의 격률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대화함축 (observing the conversation maxims)과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대화함축(flouting or exploiting of the maxim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1)]

먼저 대화 격률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대화함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4) 경수 씨는 딸이 둘 있어요. 애들 이름은 가영이랑 가희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발화를 했다면, 위의 발화는 '경수 씨가 딸이 단 둘뿐이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양의 격률에 따르면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양의 격률에 따라 경수 씨에게 딸 이외에 다른 아이가 있었다면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의 발화는 양의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함축의미로 볼 수 있다.

(15) (엄마가 아들에게) 몸 좀 생각해서 편식 좀 하지 마렴!

---

11) Levinson(1983)은 전자를 표준대화함축(Standard Conversational Implicature), 후자를 특별대화함축(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으로 이름 지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질의 격률이 지켜졌다면 (15)는 '엄마는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화자는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질의 격률을 지키기 때문이다. 엄마가 질의 격률을 지켰다면, 편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발화는 엄마가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명제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는 것이다.

(16) A : 지금 몇 시야?
B : 미영 씨 아직 안 왔나요?

위의 대화는 외국인들이 언뜻 보기에 이상한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인 'B'가 관련성의 격률을 지켰다고 가정한다면 적절한 함축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청자가 'B'의 발화를 듣고 이것이 대화 상황과 관련 있는 발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추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A'와 'B'의 대화가 일단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영 씨가 누구인지, 출근 시간이 몇 시쯤인지 둘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면 'B'의 발화는 출근시간에 미영 씨가 지각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발화가 되어 어색하지 않은 대화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화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 격률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한 대화에서는 대화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새로운 함축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를 할 때, 서로 대화에 협조적이며, 상황에 적합한 발화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 따라 대화 격률이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화가 함축하고 있는 바를 추론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함축의미를 찾게 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17) (민호는 한 달에 두 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
A : 민호야, 너는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니?
B : 저는 한 달에 두 권 정도 읽는데, 주로 저녁 시간에 간식을 먹으며 읽어요.

'B'는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니?'라는 'A'의 물음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 이상의 정보를 언급하며 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양의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함축의미가 생기는 경우로는 항진명제를 발화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주어 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18) ㄱ. 제가 볼 때도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ㄴ. 직접 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8ㄱ)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디까지나 발화의 내용을 개인적인 견해로 남 말하듯 말꼬리를 흐리는 '생각해요'를 덧붙이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다. 여기서 '분명히'라는 표현이 강조인 것 같지만 이러한 수다스런 표현은 명제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불확실성의 표현과 함께 명제에 대한 확신이 그리 강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청자의 주의를 이끈다. (5ㄴ)는 필요 이상으로 화자의 입장을 회피하는 경우의 함축이다. 요즘 한국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같다, 같아요.'는 무엇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좀 더 불확실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도 역시 양의 격률을 위배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는 오히려 화자의 단호한 태도가 아닌 틀려도 어쩔 수 없다는 책임 회피적인 의미를 산출한다.

(19) A :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할래?
B : 오늘은 선약이 있어
A : 선약? 무슨 약속?
B : 세시부터 만날 사람이 있어
A : 친구?
B : 응.
A : 알았어. 또 연락 줄게.

여기에서 A의 물음에 대한 B의 대답은 표면상으로는 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A가 계속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아 B는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A : 이 <양산 쓴 여인>이 고흐의 작품이던가?
B : 그럼 <별이 빛나는 밤>은 모네가 그린 거겠군.

위의 대화에서 'B'는 의도적으로 질의 격률을 위반했다. 질의 격률을 준수하는 발화에서는 화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B'는 <별이 빛나는 밤>이 고흐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A'에게 거짓으로 말함으로써 'A'가 틀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질의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함축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 Grice(1975)에 의하면 실제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반어법 (Irony), 은유법(Metaphor), 과장법(Hyperbole) 등은 모두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함으로써 함축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또한 반어의 한 해석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다음 예문에서 살펴보자

(21) ㄱ. 신랑감이 원체 키가 커서
ㄴ. 무자식이 상팔자다

(21ㄱ)에서 신랑감이 키가 작은 것은 화자, 청자 공유의 사실이라든지 또 청자가 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른다 할지라도 앞 뒤 맥락상 비꼬는 형태의 반어로 쓰일 수 있다. (21ㄴ)는 속담으로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온갖 궂은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조적인 위로의 한 표현으로서 질의 격률의 위배를 이용한 반어의 관용적인 발화 방법이다. 이 이외에도 반어는 불쾌한 현실에 익살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유머나 풍자로 이용되기도 한다.

(22) 당신은 나비

(22)에서도 질의 격률이 위배되고 있는데 사람은 나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엄격하게 불일치를 내포한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연관을 갖는 말들을 하고 있는 협력의 원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속성인 가벼움, 부드러움, 연약한 이미지가 나비의 속성이 서로 비교되어 일치되게끔 연상된다. 이것이 화자의 의도로 함축되는 것으로 은유가 되는 것이다.

(23) A : 김대리는 오늘도 부장님께 혼났데요.
B : 우리 잠깐 커피 마시러 갈래요?

(24) A :엄마, 친구 만나게 돈 좀 주세요
B : 너 나이가 몇 살이냐

(23)에서 'B'는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화를 용인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B'는 'A'가 김대리에 대한 뒷담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함축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에서는 공부를 해도 시원찮을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매번 돈을 주라면서 놀러간다고 나섰을 때 어머니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때 A의 말에 B는 전연 관련성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여기서는 화자는 물론 청자도 화자의 의도가 '철이 언제 들겠느냐' 는 나무람이 함축된 의도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25) 거시기 그거 말여.

(26)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위의 예문은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것으로 (25)에서는 표현의 모호성을 범하고 있다. 그러나 저 발화를 듣는 청자는 모호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함축을 추론하여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들 참가자들 사이에 '협력의 원리'가 작용한다면 청자는 그의 말에 깃든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의 대화 내용을 제삼자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화자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6)도 모호한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시인에게 있어 오히려 독자의 상상력을 넓히는 데 이용되고 있다. 시의 경우에 사전적이고 명쾌한 뜻을 가진 언어보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 효과적으로 정서적인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중의성을 갖는 발화이다. 여기서 '님'은 조국이나 이성, 종교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는 것은 이 외에도 유머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밖에 애매한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간결한 문장을 쓰지 않는 것 등은 모두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는 화자의 생각이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청자에게 그 판단을 유보하거나,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다.

3.2. 대화함축의 특성

김현주(2016)에서 Grice는 대화함축이 지니고 있는 특성 5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소가능성(Cancellability)

(27) A : 저는 빨간 차가 한 대 있어요.
B : 차가 하나 있군요.
A : 아니요, 차가 또 있는데요.

취소가능성은 대화함축의 특성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서, 화용론에서의 함의, 전제 등과 함축이 구분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함축은 맥락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거나 후행 발화가 바뀐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그것이 의미상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A'의 첫 번째 발화를 통해 'B'가 추론한 함축의미는 'A'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는 빨간 색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발화를 통해서 'B' 가 추론한 대화함축은 취소된다. 이처럼 대화함축은 청자가 추론한 함축을 취소할 수 있다.

2. 비분리성(Non-detachability)

대화함축은 맥락과 분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대화함축은 발화의 언어적인 형태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발화 문장을 이루는 요소가 약간 변화하더라도 발화 맥락이 같다면 동일한 함축을 가질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8) A : 오늘 우리 뭐 할까?
B : ㄱ. 요즘 벚꽃이 한창 예쁘다는데.
ㄴ. 친구가 그러는데, 여의도에 벚꽃이 한창 피었대.
ㄷ. 어제 뉴스 보니까 벚꽃축제가 이번 주까지라고 하더라.

'나'의 대답은 모두 다르지만 발화 맥락이 동일하고, 표현의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벚꽃을 보러 가고 싶어.'라는 같은 함축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3. 계산가능성(Calculability)

대화함축은 함축의미를 해석해 내는 데에 필요한 추론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29) A : 어? 지금 몇 시야?
B : 방금 전에 종 울리던데?
A : 벌써 쉬는 시간 끝났네!

'A'가 'B'의 발화를 듣고 지금이 쉬는 시간이 끝났다는 함축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학교 종이 일정한 시간에 울린다. → 방금 전에 종이 울렸다. → 따라서 지금은 쉬는 시간 끝났다.'라는 추론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자는 화자가 대화의 원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맥락을 통해 추론하면서 대화함축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함축의 발생과 해석에 대해 대화 참여자는 논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4. 비고정성(Non-conventionality)

발화에 사용된 표현 자체에서 발생하는 함축은 대화함축으로 볼 수 없다. 대화함축은 발화 상황과 맥락, 격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비고정적이다.

(30) A : 너 과제 다 했어?
B : 오늘 수업 휴강이잖아.

(31) A : 나 수업에 지각할 것 같아.
B : 오늘 수업 휴강이잖아.

'B'는 똑같은 발화를 했지만 (30)와 (31)에서 각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르다. (30)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B'의 대답은 '오늘까지 과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함축의미를 생성하고, (31)에서 'B'의 대답은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 혹은 '너는 지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함축을 생성한다. 이렇게 대화함축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5. 비확정성(Indeterminacy)

대화함축은 발화 맥락과 격률에 따라 함축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발화라 하더라도 한 가지의 함축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둘이상의 함축의미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비확정성이라고 한다.

(32) ㄱ. 유정이는 이번에 아쉽게도 1등을 못했다.
ㄴ. 유정이는 2등을 했다.
ㄷ. 우리는 유정이가 1등 하기를 기대했다.

(32ㄱ)은 (32ㄴ)을 함축할 수도 있고, (32ㄷ)을 함축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른 함축의미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이처럼 대화함축은 함축하는 바가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는 비확정성을 갖는다

3.3. 대화함축의 분류 [12)]

3.3.1. 일반대화함축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는 어떤 경우는 대화의 주제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대화에 비협력적으로 보이는 이야기 혹은 불일치 상황, 협력 원리를 무시하는 등 사소한 문제에 부딪치면서 화자는 문자로 나타난 뜻과는 다른 의도를 전달하고 또 청자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대화 속에 함축된 의미 때문이다.

함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고정적인 표현 수단도 필요하지 않고, 대화의 맥락이나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명제 내용 이상의 함축의 미를 추론하게 되는 함축을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라고 한다. Levinson(1983)은 대화함축을 일반대화함축과 특정대화함축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대화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은 어떤 특정한 문맥 조건들이 없어도 해석할 수 있는 대화함축으로서, 특정 형태가 무표적인 해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맥락을 요구하지 않는다.

(33) A : 모두 모였나요?

12) 김현주(2016)에서 분류 방식 인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 거의 다 모였어요.

위의 대화 상황에서 화자 'B'가 발화한 "거의 다 모였어요."가 함축하는 의미는 '아직 다 오지는 않았다.'이다. 이러한 함축의미는 특정한 맥락에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같은 함축의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는 일반대화함축이라고 할 수 있다.

3.3.2. 특정대화함축

이에 반해 특정대화함축(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은 특정한 문맥적인 조건이 있어야만 함축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34) A : 오늘 시험은 잘 봤니?
B : 저 지금 말할 기분 아니에요.

위의 대화에서 화자 'B'가 의도한 함축의미는 '오늘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B'는 말할만한 기분이 아니라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면 청자 'A'가 'B'가 시험을 잘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맥락적 정보를 가지고 화자는 "저 지금 말할 기분 아니에요."라는 발화를 한 것이고, 청자는 그 맥락을 이용하여 그 상황에 적절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험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는 함축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화용적 요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예시

화용적 요소의 여러 표현을 알고 있어도 실제 의사소통에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각각의 요소들을 언제 써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용적 요소가 쓰일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제시하여 화행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업의 예를 실제 수업 현장에서와 같이 도입, 제시, 연습, 활용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도입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법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교사는 먼저 학생들에게 어떤 일정한 답이 도출되기를 미리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을 간접화행이나 대화함축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인다.

교사 :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이 질문에서 답변을 '네' 또는 '아니요'로 먼저 구분하고 그에 일치하는 간접화행이나 관용구들을 자료를 통해 먼저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한다.)
학생 : ㄱ. 당연한 거 아니니?
ㄴ. 왜 안 되겠어요?
ㄷ. 말도 안 돼요. /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 흥! / 웃기지 마!
ㄹ. 됐어

위의 대화에서 '뭐 하나 물어볼게요.' 또는 '질문 하나 할게요.'라는 진술화행을 간접화행으로 발화한 표현이다. 간접화행을 통해 발화수반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질문이지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손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 학습자라 할지라도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실제적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ㄱ)과 (ㄴ)은 긍정을 나타내는 간접화행의 예이다. (ㄱ)과 (ㄴ)은 질문 형식으로 긍정 응답을 간접적으로 발화한 것이다. 부정 의문문을 사용해서 직접 화행에서보다 더 강한 의미로써의 긍정의 의미를 청자에게 부여한다.

또한 (ㄷ)과 (ㄹ)에서는 부정 응답을 간접적으로 발화한 예이다. (ㄷ)에서는 각각 진술, 질문, 감탄, 명령 형식으로 부정문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발화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반어법이나 냉소적인 표현으로 부정 응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행의 발화수반력을 강화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도적인 발화 행위인 것이다. (ㄹ)에서는 '됐어.'라는 텍스트만 보면 긍정문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시

도입 때 사용한 화용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관용구처럼 묶어서 제시한다.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준다.

공손한 표현 : A/V -도 될까요? 예) 이 컵을 제가 써도 될까요?
부정 의문문을 써서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 : '당연한 거 아니니?', '왜 안 되겠어요?'
부정표현의 관용구 :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흥!', '웃기지 마!', '됐어'

'-도 될까요?'의 예처럼 직접발화를 발화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뜻하는 다양한 문장 형식으로 말뭉치처럼 한데 묶어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면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현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35) 당연하지. / 이 정도는 껌이야! / 내가 누군데. / 나 잘 알잖아. / 내가 못할 것 같아?
(36) -싶어. / -면 좋겠다. / -해 주겠니? / -수 있을까? / -인지 알려 줄래?

또한 간접화행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문화적 배경과 화행 상의 차이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용적 표현'을 목록화해서 이를 교육에 반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37) (네가 일등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 (아무개) 뺨치겠네. /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 미역국 먹었어요. / 기가 막히네. / 말도 안 돼. /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이와 같이 위에서 예로 제시한 몇몇 표현들처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관용적 표현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각각의 표현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학습자에게 설명하거나, 특정하게 규격화된 표현들이 쓰이는 경우의 담화 상황을 예시로 들어 언어외적인 의미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연습

배운 표현을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 활동을 하면서 연습한다. 짝 활동을 하면서 화용적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그 표현을 익힐 수 있다.

Q. 보기에 주어진 표현들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단, 앞선 시간에서 제시된 관용구들이나 문장으로만 연습한다.)

[보기]
내 뺨 좀 꼬집어 줘 / 애 떨어질 뻔 했네 / 당연한 거 아니야? / 이게 웬 일이니? / 왜 안 되겠어? / 등골이 오싹하다 / 말도 안 돼 / 흥! / 조용히 좀 합시다! / 여기요! / 그런 말씀 마세요 / 멋지긴요? 좀 낡았어요.

대화 예시 :
가. 이 이야기 어땠니? 나. _____

'내 뺨 좀 꼬집어 줘'는 기쁨을 명령 형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기쁘다'라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애 떨어질 뻔 했네'는 '깜짝 놀랐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놀라다'라는 감정을 진술 형식(진술형 종결어미 '-네')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이라면, '애 떨어질 뻔 했네.'라는 표현을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뻔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문장에 쓰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언표적인 의미와는 달리 '놀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게 웬 일이니?'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또는 '무슨 일 있었니?'라고 묻는 표현이다. 이는 단순히 놀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화행이라기보다는,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청자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구체 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 사태의 발생 원인이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의도로 묻는 화행이다.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무서움과 공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의 의미를 제2언어 학습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골', '오싹'등의 단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좀 합시다.'의 경우는 청유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와 청자가 미래의 어떤 행동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화행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유 형식을 명령화행의 간접화행으로 사용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것은 청자에게 공손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또한 마치 화자가 청자와 함께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처럼 말함으로써 청자가 느낄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여기요!'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호출화행이다. 이러한 화행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호출하여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호출을 받는 당사자인 청자에게 '이리 좀 와 주세요.'라고 하는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들, 특히 교실에서 일정한 교재를 가지고 진행되는 수업 외에는 실제적인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학습자들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여기' 또는 '저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리 좀 와 주세요.'라는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의 언어생활에서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이런 표현들을 학습 교재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을 교재에 수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해 봐야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말씀 마세요.'같은 경우 화자의 감사나 사과에 대해 형식적으로 공감하는 것보다 비공감 함으로써 더 공손하게 말하는 경우로, 이는 비공감이 공손을 나타내는 영어권에서도 비슷하게 쓰이지만 한국인에게는 독특할 정도로 과하게 나타난다.

'멋지긴요? 좀 낡았어요.'는 한국 사회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가 이런 응대를 하는 한국인 화자와 담화를 나눌 경우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오해하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문화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어 사용의 다름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느끼는 문화 충격은 실제로 이와 유사한 담화 상황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자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의 언어 환경에서 이와 같은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학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가 교실이 아닌 실제적인 언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때 한국인 화자의 발화 의도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활용

배운 화용적 요소의 문형이나 관용구들을 실제 담화 상황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자유롭게 진행 가능하다. 대화 장면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발표를 해본다. 이를 통해 더 나아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함축이나 함의 등이 포함된 발화수반행위에 대해 추론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담화 상황을 제시하여 어떤 담화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어의 화행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발화수반행위에 내포된 의미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8) A : 날씨가 좋군요.
B : 그래요, 어제보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A : 그러네요, 요즘은 하루는 춥고, 하루는 따뜻한 것 같아요.
B : 내일은 또 좀 추워지겠군요.
A : 그렇겠죠. 하지만 날씨야 내일 돼 봐야 알겠죠.
B : 그러게요. 휴가 때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A : 예,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B : 그러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부산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A : 어머, 그래요? 가족들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군요. 즐겁게 지내세요.
B :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42번 버스가 지나갔나요?
A : 아니요, 제가 8시부터 서있었는데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B : 그렇다면 곧 오겠네요. 회사에 지각할까봐 지금 몇 분이죠?
A : 25분이예요.

(38)의 대화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이웃끼리 나누는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 초반의 대화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혀 정보성이 없다.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발화문의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이미 대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후반부 대화부터는 정보성이 있는 대화로 전환된다.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들이며 대답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심적인 이야기는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이렇게 정보성이 없는 대화에서 정보성 있는 대화로 그리고 핵심적인 대화로 전환되어 간다. 이러한 대화 방법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정보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항상 공손하고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칭찬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중함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무례함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사용되는 의도된 의미는 발화문의 의미로 가능한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발화문의 의미는 단지 청자가 화자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도울 뿐이다. 따라서 의도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업을 지도할 때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간접화행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의 오류를 교육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각각의 주어진 담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담화의 내용이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용 표현이나 함축 등의 간접 화행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용적 표현이나 함축 사용 등의 간접화행을 제외한 일반적인 발화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직접화행은 비록 외국인 학습자라 하더라도 주어진 담화의 상황과 맥락만 이해할 수 있다면 실제로 발화된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언어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정서이기 때문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발화 행위에 있어서 단순히 언어 그 자체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표정과 억양 등을 통해서도 청자에게 발화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감탄사가 아니더라도 언어의 '소통적인 기능'은 어느 단계까지는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수업안 예시

[표 1]

[수업 지도안]

반	**고급**	일시		교사	

단원명	임의의 단원	**차시**	/10
단원 학습목표	임의의 학습목표	**과제 활동**	관용구 카드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본시 학습목표	- N(은/는/이/가/라도) A/V+어요?의 간접 표현을 이해한다. - 다른 관용표현을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학습 내용(지도 내용)**	**시간**	**학습자료**
도입	*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목표 학습 내용의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대화한다. T : 여러분 안녕하세요? S : 안녕하세요? T : 요코 씨, 식사는 하셨어요? S : 네, 아까 밥 먹었어요. T :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식사는 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은 했는지, 날씨는 어떤지 이야기와 상관없는 질문을 간단히	5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문형을 노출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고는 해요. 오늘은 이런 간접적인 표현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전개	제시	* 칠판에 문법 내용을 판서하기 * 다양한 예시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하기 N(은/는) A/V+어요? 의미는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 대화를 시작하거나, 화제를 만들 때 쓰입니다. T : 제니 씨, 점심은 먹었어요? S : 아뇨, 아직 안 먹었어요. T : 로즈 씨,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S : 네, 오늘 월급 받았어요. T : 왕카이 씨, 오늘 날씨는 어때요? S : 너무 좋아요, 소풍 가고 싶어요.	10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연습	*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적용하기 T : 우리 먼저 보기를 같이 해볼까요? Q. 주어진 상황에서 N(은/는) A/V+어요? 를 이용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상황 : 티엔 씨의 표정이 안 좋아보여서 걱정이 돼요. 화제 : 숙제 다 했는지 물어보기 A : 티엔 씨, 어제 숙제는 다 했어요? B : 네, 다 했어요. A : 근데 티엔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T : 잘 했어요. 지금부터는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과 화제를 통해 짝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① 상황 : 로즈 씨와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화제 : 날씨가 어떤 지 물어보기	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 로즈 씨 오늘 날씨 어때요? B : 날씨가 화창하고 좋네요. A : 날씨도 좋은데 산책 할까요? ② 상황 : 오랜만에 길 가다 제임스 씨를 보았어요.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싶어요. 화제 : 식사 했는지 물어보기 A : 제임스 씨,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B : 네, 아까 먹었어요. A : 오랜만이네요. ③ 상황 : 왕옌 씨가 피곤해보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화제 : 잠잤는지 물어보기 A : 왕옌 씨, 어제 잠은 잘 잤어요? B : 아뇨, 시험 공부하느라 밤 샜어요. A : 저런, 너무 피곤해 보여요.		학생들이 대화를 하는 동안 교사는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별 지도를 한다. 교재, 영상물
	활용	* 미디어나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보고 간접 화행을 체험해보며 쓰임에 대해 이해하기 T : 다음은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들이에요. 여기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무엇인 것 같아요? 의도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으로 보여요? 한 번 편하게 이야기 해봐요. - 실제 일상 대화 예시 A : 날씨가 좋군요. B : 그래요, 어제보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A : 그러네요, 요즘은 하루는 춥고, 하루는 따뜻한 것 같아요. B : 내일은 또 좀 추워지겠군요. A : 그렇겠죠. 하지만 날씨야 내일 돼 봐야 알겠죠. B : 그러게요. 휴가 때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2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 예,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B : 그러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부산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A : 어머, 그래요? 가족들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군요. 즐겁게 지내세요. B :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42번 버스가 지나갔나요? A : 아니요, 제가 8시부터 서있었는데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B : 그렇다면 곧 오겠네요. 회사에 지각할까봐 지금 몇 분이죠? A : 25분이예요. - 황금빛 내 인생 14회 17.10.15 영상 및 스크립트본 A : 어? 선우휘 씨? 어이구 몰라볼 뻔 했네. 오랜만입니다. 어? 왜? 나 기억 안 나요? 강남구! 그 이화여대 앞에서 호떡 팔던... 기억 안나요? B : 기억나요..... A : 잘 지내셨죠? B : 안녕하세요? A : 아니, 근데 뭐 이 동네 사시나? B : 아니, 근처에 볼 일이..... A : 아, 그렇구나! 허허허,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리		* 학습 내용 정리와 다음 차시 예고 T : 잘 했어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은 N(은/는) A/V+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다른 주제로 먼저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공손한 표현 중 하나예요. * 학습 목표 확인 T : 여러분은 이제 대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다음 차시 안내 T : 다음 시간은 쓰기 시간이에요. 주어진 관용구를 이용해 직접 글을 완성해 볼 거예요.		

활용 연습 자료

- 실제 일상 대화 예시

A : 날씨가 좋군요.
B : 그래요, 어제보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A : 그러네요, 요즘은 하루는 춥고, 하루는 따뜻한 것 같아요.
B : 내일은 또 좀 추워지겠군요.
A : 그렇겠죠. 하지만 날씨야 내일 돼 봐야 알겠죠.
B : 그러게요. 휴가 때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A : 예,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B : 그러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부산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A : 어머, 그래요? 가족들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군요. 즐겁게 지내세요.
B :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42번 버스가 지나갔나요?
A : 아니요, 제가 8시부터 서있었는데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B : 그렇다면 곧 오겠네요. 회사에 지각할까봐 지금 몇 분이죠?
A : 25분이예요.

- 황금빛 내 인생 14회 17.10.15 영상 및 스크립트본

A : 어? 선우휘 씨? 어이구 몰라볼 뻔 했네.
오랜만입니다. 어? 왜? 나 기억 안 나요?
강남구! 그 이화여대 앞에서 호떡 팔던...
기억 안나요?
B : 기억나요.....
A : 잘 지내셨죠?
B : 안녕하세요?
A : 아니, 근데 뭐 이 동네 사시나?
B : 아니, 근처에 볼 일이.....
A : 아, 그렇구나! 허허허,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 하는 일반적인 간접화행과 대화 함축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화용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한국어 화행을 실제 담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각 과마다 모범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때 예문으로 제시되는 화행들 대부분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화에 포함된 어휘만으로도 의미 파악이 가능한 직접화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간접화행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표현들보다는 간단하고 단조로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국인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간접화행의 실현 양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습 교재에는 실제적인 표현들이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표현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 놓였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위 '교재 제작용 표현'이 아닌 좀 더 실제성이 있는 표현들이 학습자가 사용하는 교재에 더 많이 제시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한국어 학습자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화행으로 인해 문장의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헷갈려한다고 파악되는 경우에는 주어진 담화 상황과 맥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간접화행으로 나타난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 때, 간접화행으로 표현된 발화 내용이 전형적인 발화 형식이 아닌 다른 발화 형식으로 표현됨으로써 특정한 발화의 발화수반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켜 그 문장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반대로 담화 분위기나 상대를 고려하여 강한 어조를 약하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등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담화 상황이나 맥락에 맞는 감각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담화 차원에서의 화행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교실 수업 뿐 아니라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므로 문법의 정확성이 학문목적 학습자에 비해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학문목적 학습자나 일반 목적 학습자들과 같은 정도로 정확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신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언어학적 요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화공동체가 공유하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료들 간에는 격의 없이 담소를 나누다가도 상급자 앞에서는 절제하는 언어 예절부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능력(말 더듬기, 긴장된 어조, 불안한 표정, 문장 구조의 파괴)까지 포함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어의 진술화행은 진술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직접적 표현과 함께 질문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간접화행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 예문으로 제시되는 화행들은 한국인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실제적인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실제성이 결여된 문장들만 경험을 한다면, 익숙지 않은 화행을 접했을 때 화자의 화행이 전달하려고 하는 실제 발화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간접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언표적인 내용만으로 주어진 문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한국어 학습자가 문장의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헷갈려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주어진 담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간접화행으로 표현된 발화 내용이 사실은 특정한 발화의 발화수반력을 강화시켜 그 문장이 뜻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학습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국어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언어적 간섭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이해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이해상의 오류를 교육자들이 인지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강현자(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방식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구현정(2000), <<개정 대화의 기법 : 이론과 실제>>, 경진문화사

구현정(2001),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권성미 외(2008), <<한국어 초·중급 교재에 제시된 간접화행의 실현 양상>>,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옥춘(2017), <한국어 간접화행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윤수(2011), <한국어교육에서 청유문 화행 연구 :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주(2016), <대화함축을 유발하는 국어 표현 항목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류팡(2009), <한국어 간접화행과 공손표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유미(2009),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지예(2015),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간접 화행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현진(2000), <대화 함축의 화용론적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혜영(2009),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BS 교육방송 편집부 저(2014), <<EBS 올림포스 국어 1>>, 176-177.

Austin J. L · Urmson J. O(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 Oxford Univ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터넷 인용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통계자료 http://www.nime.or.kr/business/statistics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jsp
http://tv.naver.com/v/2168529 황금빛 내 인생 14회분 (17.10.15)

Collection @ chosun